

# 『冥報記』의 冥界說話가 일본설화문학에 수용된 양상연구\*

— 『日本靈異記』를 중심으로 —

李市竣\*\*

---

## 目次

---

- I. 서론
  - II. 현세와 명계의 위치관계
  - III. 冥界의 모습과 역할
  - IV. 墮冥界의 이유와 구제의 이유
- 

## I. 서론

인간은 사후 어떻게 되는 것일까하는 문제는 현대인에게 있어 관심을 가질만한 테마이기는 하지만 근대합리주의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후의 세계, 즉 冥界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冥界譚, 특히 지옥 등의 冥界를 방문하여 다시 현세로 돌아오는 蘇生譚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확신과 신빙성을 가지고 冥界譚이 만들어져 전승되어 왔다. 일본고대문학에 있어 명계담의 시초는 『古事記』의 이자나기의 黃泉訪問譚이지만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명계담을 수록하고 있는 작품은 『日本靈異記』라 할 수 있다. 설화문학의 효시인 『日本靈異記』(이하『靈異記』로 약칭)에는 冥界에 관한 부분적인 기술이 보이는 예를 모두 포함하여 총16화의 명계담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의 연구단계에서는 『靈異記』序에 「昔漢地造冥報記, 大唐國作般若驗記」라는 기술대로 『靈異記』의 성립에 唐初의 佛教說話集인 『冥報記』의 영향을 상정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한편 『冥報記』는 고대말기, 院生期에 성립된 『今昔物語集』震旦部に 있어서 『三宝感應要略錄』, 『孝子伝』과 함께 『今昔物語集』의 주요 출전으로도 되어 있어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A00185)

\*\* 崇實大 日本學科.

본고의 목적은 『冥報記』의 명계담과 『靈異記』의 명계담을 비교하여 『靈異記』에 있어서의 『冥報記』의 영향과 『靈異記』의 독자성을 살피는 데에 있다. 『冥報記』(655년경 성립)는 중국에서 散逸되어 일본에만 남은 자료인지라 『靈異記』의 冥界觀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冥報記』의 충분한 검토 없이 「中國說話의 재판」식의 『冥報記』의 영향만을 강조하는 시점과 「日本古來의 民族信仰」식의 『靈異記』의 독자성만을 강조하는 시점의 양극단을 오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이전에 「『日本靈異記』の冥界觀」이라는 소론에서 冥界譚의 話型, 구결하는 冥鬼, 善業과 惡業의 輕重을 측량하는 방법에 있어서 『靈異記』가 『冥報記』의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논한 적이 있다<sup>1)</sup>. 본고는 그 후속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다른 이전의 논문과 그 방법을 조금 달리하여, 양쪽의 내용을 일대일대응을 시도하여 그 상이점을 조사하도록 한다. 그 내용이란 冥界譚의 기본 모티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현세와 명계의 위치관계」, 「명계의 공간구성과 역할」, 「명계로 간 이유와 구제의 이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고찰의 대상이 되는 冥界譚은 『冥報記』의 경우 총22話이며 『靈異記』의 경우는 총16화이다.

## II. 현세와 명계의 위치관계

본 절에서는 현세에서 명계로 이동하는 道程을 조사하여 현세와의 위치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冥報記』의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李市竣(2003, 11) 「『日本靈異記』の冥界觀」, 『日語日文學研究』, 한국일어일문학회, pp43-63참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日本靈異記』의卷末의「日本靈異記關係說話表」では、『靈異記』冥界譚의16話のうちわずが中5・10・19・25・下35に對して『冥報記』に「關係說話」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ところが、「關係說話」と見做す基準において大きな説話の内容が似ている話型を問題にする場合があれば、説話内の特定の事柄(モチーフ)を問題にする場合がある。何よりも、同じ条件を持つ他の話を取りあげられていないのが大きな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よう。そこで、冥界譚の一般的な話型を提示し、『靈異記』と『冥報記』の兩書をここに適応させ、話型による關連話の指定に客觀性を期した。『靈異記』にみるすべての話型が『冥報記』にすでにあり、日本で冥界譚ともいふべき説話が本格的に『靈異記』をもって初めて登場してくることをも念頭に置くと、少なくともパターン化した説話という視点では『冥報記』の影響を想定せざるをえなくなる。モチーフや思想などに關しては、まず物乞いの冥鬼が取りあげられた。兩書に共通であって、それが仏教にその原形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性格が冥界譚に於いての鬼造である点も考慮に入れると『靈異記』に及ぼした『冥報記』の影響と判断した方が順當であろう。次は「黄泉の國」「黄龍火物」などのように『靈異記』に上代の他界觀・死靈觀が投影されている点に關してであるが、「黄泉」とは書かれたもののそれが「記紀」などに見る「黄泉」とはその性格が違っていて、『靈異記』の冥界觀から古代の思想を直接引き出すのは飛躍であろう。最後に善業と惡業の輕重を量る方法が『冥報記』と『靈異記』が共通している点に關してである。影響の問題をあえていうなら、そもそもこの觀念が經典に説かれていたとしても、冥界譚そのものが『冥報記』から出發し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靈異記』であったことを念頭におくと何らかの影響はあったといつて差し支えないだろう。

- ① 惠如を引きて獄門に至る……座禪修道ニ因リテ定リテ遂ニ七日動カ不。……惠如、目を開き涕泣交ニ流る(『冥』上2)
- ② 行きテ太山廟ニ至リテ寄宿ヲバ求む(『冥』中1)
- ③ 初め收られ官ノ曹に詣。内に忽ちに其の母を見る……小かりシ時ニ死ニテ身暖かにシテ四十餘日を経テ乃ち蘇る。……一の虚しき舎を指シテ寶ヲシテ中に入ら令む。既に入りテ蘇リヌ(『冥』中4)
- ④ 夢其身京市の義寧坊里南の街ニ行に忽ちに曹ヲ見る……言畢リテ醒めヌ(『冥』中7)
- ⑤ 忽ちに夢みる者の如く一つの物をみる……既にシテ大安覺めて遂に蘇リヌ(『冥』中8)
- ⑥ 初め數人有りて收られテ將テ行。官府ノ大門に入りヌ。……僧因りて辯を引きて出でテ門外に至リヌ。……仍歸路を示ス。辯此を被テ歸りて家に至る(『冥』中12)
- ⑦ 黄河已北は忽じて臨胡國爲り。國郡ハ樓煩の西北に在り。沙磧是なり。其の王ハ卽趙ノ武靈王ナリ。今此の國を統ふ忽じて太山の控攝ヲ受け毎月各の上相をして太山に朝せしむ。……國內は知ら不。後月太山に朝スル。……問ひて「何に由りてか府君に見えむ」といふ。景曰はく「君鬼に見えむと欲せば見ゆることを得べきのみ。太山廟ノ東陵ニ往きて一の小嶺を渡リテ平なる地は是れ其の都とする所ナリ。君往きて自ら當に之に見ゆべし」といふ(『冥』中14)
- ⑧ 冥史の爲に攝せられ南行シテ門に入る。門内ノ南北ニ大なる街アリ……十三日に至りて死ぬ。日を経て蘇りて(『冥』中15)
- ⑨ 死する時に當りて冥官収録せられ一つノ官曹にいたる。……吏に辭して家に歸リ家人を見るに正哭して殯具を經營ス。山龍入りて死の旁らに至り卽ち蘇リぬ(『冥』中18)
- ⑩ 遜侍御ヲ喚す聲有りキ。……莫に謂ひて「官、喚す」といふ。……之に乗りて二人に隨ひて行く。乃ち天地晝日の如く光明朗ナリト覺ゆ。……北谷の口ニ引きテ朝堂の東北ヲ歷テ行くこと六七里にシテ苜蓿谷に至リテ……路に修テ往還し了りぬ。了るコト平生ノ行く處ニ異なら不……戸に入り其の身を見ルニ婦と並びて眠れい。之に就かむトするモ得不……自ら死せることを知り甚だ恨む。……久之して微睡するに忽ちに驚く。身は已に床の上に在り(『冥』中19-①)
- ⑪ 夜夢前日の鬼來たりテ莫を召し引き高山に上ル。山の嶺ニ大官展有り有り。推シテ山ヨリ墮とす……推シテ山ヨリ墮とす。是にして驚き悟めテ(『冥』中19-②)
- ⑫ 始め忽ちに人ノ喚ふヲ見る。隋ひて一處に至る。大きな池の穴有り。……卽ち穴の中に入る。……人有りて引き出しテ穴の口の中に入る。……暴ニ死ヌ。而るに心尙暖ナリ。家人之ヲ殯スルニ忍不。三日にして乃ち蘇リテ(『冥』下3)
- ⑬ 嘗て去るコトを覺え不シテ忽に官府の門に至る(『冥』下4)
- ⑭ 門を叩きテ此ノ兒を呼……兒を引きて村ノ門ヲ出づ。村ノ南ハ舊是れ桑田ナリ。耕シ迄テ未だ種を下さず。是ニ旦に此ノ兒忽ち道ノ右ヲ見るに一の小城有り。四面の門樓丹素甚衆し。……城の北門に至リテ兒をして前に入らしむ(下8)
- ⑮ 大門を出づるに忽ちに兩の人を見る。各馬一疋を捉き先みて門の外の樹の下に在リテ

立てり。・・・嘉運即ち樹の下にして馬に上りて去りぬ。其の實ハ樹の下に倒仆。俄にして一の官曹に至りて將に大門に入らむとす。・・・自ら死せるコトを知りヌ。・・・使者ヲシテ遣りて嘉運を送りテ一ノ小澁道に至り指シテ此の路に由り歸らしむ(下15)

- ㉑ 官の前に至りて問はる。・・・人をシテ送り出ださしめ蘇ることを得たり(下19)
- ㉒ 初めて死する時四の人其の所に來至スルヲ見る。曰はく「官符汝を追ふ」といふ。穢人に隨行し一つの大門に入る。・・・但だ東行すること二百歩。當に一ノ故牆ノ穿り破れたるヲ見るべし。明かりヲ見テ之を衝べし。即ち君が家に至らむ。・・・家に歸り家人の哭泣するを見る。戸に入りて蘇る(『冥』下23-①)
- ㉓ 見るに吏來たりて・・・因りて行きて出づ。金光明かニシテ坑に入らしむ  
(『冥』下23-②)
- ㉔ 初めて死するに兩人有りて來り取りて空に乗りて行きテ官府に至りて大門に入る  
(『冥』下24)
- ㉕ 始め忽ちに冥官の爲に追はれて大官府に至る(『冥』下25)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위치관계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경우(上2, 中4, 中12, 中15, 中18, 下3, 下4, 下15, 下19, 下23, 下25)가 대부분인데, 보통 「獄門」「官府의 대문」「官曹」로 표현된다. 명계의 입구가 下3과 같이 「연못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sup>2)</sup>.

다음으로 「남행하여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中15의 경우나 하늘과 땅이 밝은 대낮과 같은 길을 「北谷부근」으로 가서 「朝堂의 東北」으로 또 「苜蓿谷」을 거쳐 명계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는 中19의 경우는 현세와 명계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수평타계관의 예이다. 中19가 주인공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명이 거론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中14에는 黃河已北에 위치하며 趙의 武靈王이 왕으로 있는 臨胡國이라는 곳이 명계로 설명되고 있다. 武靈王은 『冥報記』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약 1000년전의 사람으로서 臨胡國도 일종의 명계라 할 수 있다. 또한 下8에서와 같이 마을주변의 뽕밭이 불지옥의 명계로 화하는 것은 현세와 명계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수평타계관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명계가 산중에 있다고 하는 산중타계관의 경우가 보인다. 높은 산의 봉우리에 명계의 官殿이 있다고 하는 中19, 죄인이 業火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명계가 太山의 廟獄이라고 하는 中1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태산(太山, 泰山)과 관련해서 中14에는 趙의 武靈王이 왕으로 있는 臨胡國을 태산부근이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 山東의 泰山은 고대로부터 도교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後漢시대까지는 태산은, 태산의 신이 거기에 있어 死靈을

2) 下23의 경우는 명계로 들어갈 때는 「대문」이었으나 나올 때는 「금빛으로 가득한 구멍」으로 나온다고 되어있다.

모이게 하고 그 신은 인간의 수명을 알고 있으며, 산 위에는 수명의 장단을 적은 帳簿가 보관되어 있다는 신앙내지 속설이 있었다. 태산에 관한 六朝唐代의 설화에 의하면 그곳의 장관이 泰山君 혹은 泰山府君이며 그 관료로는 泰山主簿, 泰山錄事, 泰山佞伯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소박한 태산신앙은 불교의 지옥설의 침투에 의하여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상기의 中14가 좋은 예가 된다. 이 설화에는 불교적 요소가 첨가되어 六道, 三世因果, 閻羅王, 餓鬼, 造像功德 등의 설까지 등장한다. 그 내용을 보면 도교의 天帝는 六道를 총괄하는 天曹이며, 閻라왕은 인간세상의 天子와 같고, 태산부군은 尙書令錄과 같고, 五道神은 諸尙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의 閻라왕이 도교의 태산부군보다 높은 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재래사상과 외래사상으로서의 불교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외에도 下24는 「처음에 죽었을 때 두 사람이 있어 데리고 하늘을 날아 官府에 다다라서 대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술이 보이는데, 官府가 하늘에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冥報記』에서는 유일한 天上他界觀인 예로 간주되어 주목된다.

다음으로 『靈異記』에 수록된 각 설화속의 관련 기사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단,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 ① 終に嶋下郡味木の里に到り、忽に病を得、聲をあ<sup>4)</sup>げて叫びて言はく「熱や熱や」といふ。(『靈』上27)
- ② 使二人有りき。一は頂髪を擧げて來れり。一は少子なりき。伴に副ひて往く程に、二つの驛の度許に路の中に大河有り。椅を度し、金を以て塗り嚴れり。其の椅より行きて彼方に至れば、甚だおもしろ<sup>5)</sup>き國なり。(『靈』上30)
- ③ 七人の非人有りき。牛頭にして人身なり。我が髪に繩を繫け、捉へて衛り往く。見れば前の路に樓閣の宮有り。(『靈』中5)
- ④ 時に閻羅王の使二人來りて光師を召す。西に向かひて往く。見れば前路に金の樓閣有り。(『靈』中7)
- ⑤ 知らぬ兵士來り、中男に告げて言はく「國の司召す」といふ。兵士の腰を見れば、四尺の札を負へり。即ち副ひて共に往き、纒郡内の山直の里に至りて、麥畠に押し入る。畠一町余、麥二尺許生ひり。(『靈』中10)
- ⑥ 法師五人、前に有りて行き、優婆塞五人、後に有りて行く。行く路廣く平かに、直きこと墨繩の如し。其の路の左右に、宝幡を立て列ね、前に金の宮有り。(『靈』中16)
- ⑦ 是の優婆夷、夜寝ね、病まずして卒爾にして死し、閻羅王の所に到る。(『靈』中19)
- ⑧ 使の中に我を立てて、追ひいそ<sup>6)</sup>ぎて走り往く。往く前の道、中斷えて深き河有り。水

3) 澤田瑞徳(1991) 『地獄變』平河出版社, p.38-41 참조.

4) 「あ」에 해당하는 글자는 广안에 未가 있는 한자.

5) 「おもしろ」에 해당하는 한자는 言+慈이다.

の色黒黛くして流れず。沖く寂びたり。楳を以て中に置くに、彼方此方の、二つの端及ばず。前に立てる人の言はく『汝、此の河に没り、能く我が蹤ヲ踐め』といひて、躑ヲ踏みて度ら令む。前の道の頭に、重なれる樓閣有り。(『靈』下9)

⑨ 使四人有りき。副ひて將往かむと告ぐ。廣野あり、次に卒シキ坂有りき。坂の上に登りて、觀れば大きな觀有り。是に峙ちて前の路を視れば、數の人多に有りて、箒を以て路を掃ひて言はく『法花經を寫し奉りし人、此の路より往くが故に、我等掃ひ淨む』といふ。即ち至れば待ち礼す。前に深き河有り。廣さ一町許なり。其の河に椅を渡せり。數の人衆有りき。其の椅を修理して言はく、『法花を寫し奉りし人、此の椅より度るが故に、我修理す』といふ。到れば便ち待ち礼す。椅の彼方に到れば、黄金の宮有りて、其の宮に王有せり。椅の本に三つの衢有り。一つの道は廣く平に、一つの道は草小し生ひ、一つの道は藪を以て塞がる。……彼の椅を度り畢はりて、纔見れば甦きて還れり(『靈』下22)

⑩ 召の使五人、共に副ひて疾く行きき。往く道の頭に甚だ峻シキ坂有りき。坂の上に登りて、躊躇ヒテ見れば、三つの大きな道有り。一つの道は平に廣く、一つの道は草生ひ荒れ、一つの道は藪を以て塞がる。衢の中に王有す。使白して言はく『召しつ』とまうす。王、平なる道を示して言はく『是の道より將よ』とのたまふ。(『靈』下23)

일반적으로 지옥은 『俱舍論』 『大毘婆沙論』 등의 불교 경전에 의하면 땅속깊이 몇 층에 걸쳐 있는 것으로 수직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으나 위의 예를 보면 지하에 있다고 기술되는 예는 단 1화도 없으며 모두 현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단지 명계에 도달하는 도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우선 ③, ④, ⑦의 예처럼 사자의 부름을 받고 그저 서방을 향해 가다가 어떠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이 명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⑥과 같이 양쪽으로 宝幡이 정렬된 넓고 곧게 뻗은 길을 걸어갔다는 조금 구체적인 기술이 있다. 가장 구체적인 예는②, ⑧, ⑨, ⑩ 등으로 가령 ⑨의 경우는 광야를 지나 험한 언덕을 넘고 강의 다리를 건너 후에 염라왕이 있는 궁전에 이르는 ‘세갈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①, ⑤와 같이 현세의 구체적인 지역, 「嶋下郡味木」 「纔郡内の山直」의 보리밭이 이른바 灰河地獄으로 화하는 경우가 있다. 두 이야기는 내세에 죄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즉시 죄과를 받는 ‘현보담’으로 현세와 명계의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니 현세에 명계가 현실화, 가시화된 예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靈異記』에 그려진 명계는 현세와 동일평면상에 있는 이른바 水平他界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冥報記』와 『靈異記』의 현세와 명계의 위치관계를 비교해보면 넓은 시야에서 보면 현세와 명계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수평타계관이라는 점에 있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 필자가 관심을 갖는 사안은 『冥報記』의 영향관계인데, 話型과 내용

6) 「いそ」에 해당하는 한자는 「松」에서 「木」을 뺀 것.

상에서 『冥報記』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여 곧바로 수평타계관을 『靈異記』의 답습이라고 단언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즉 金岡秀友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古代日本人의 他界觀중 현세와 타계는 왕래 가능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공간적으로 타계와 현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連續的世界觀念」의 예는 『古事記』의 「高天原」와 「黃泉國」, 그리고 『日本書記』의 浦島子伝說<sup>7)</sup>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古事記』의 이자나기노 미코토의 黃泉國訪問譚을 보면, 黃泉은 어둡고 부정한 나라, 현세와의 왕래가 가능한 連續적인 空間, 黃泉比良坂이 黃泉과 葦原中國과의 경계선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그런데 한 층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보면 불교도입 이전의 일본고대의 타계관만이 수평타계관이나 하면 반드시 그렇지 만도 아닌 듯하다. 仏教에 있어서의 지옥관념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인도인의 他界觀은 『마하파라타(マハーバーラタ)』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야마(閻魔)의 국토는 南方의 땅 끝에 있어, 암흑속에 싸여 있다. 그 나라로 이르는 길은 무섭고, 도중에는 나무그늘을 만드는 수목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쉴 곳도 없다고 한다<sup>9)</sup>. 이렇게 보면 수평타계관적인 요소는 『冥報記』가 『靈異記』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靈異記』쪽에서 보면 고대의 타계관과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冥報記』의 내용을 그만큼 쉽게 수용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로 서론에서 언급한 졸론에서 記紀神話와 관련된 「黃泉の國」(『靈』上30, 『靈』下37)라는 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記紀神話의 「黃泉」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靈異記』의 명계관에서 고대의 사상을 직접 추출하는 것은 비약이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넓은 의미에서 수평타계관에 속하면서도 조금 시야를 좁혀 논의를 한다면, 두가지 사항, 즉 兩書에 산중타계관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과 있지만 『冥報記』에는 없지만 「大河」, 「深き河」 등의 기술이 『靈異記』에는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전자의 산중타계관에 관해서인데, 『冥報記』의 中19, 中1의 예가 그러하며, 특히 中1과 中14에서는 태산부군이 등장하는데 재래사상인 道教와 외래사상인 佛教가 융합된 결과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편, 『靈異記』에는 「산」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卒シキ坂有りき。坂の上に登りて、觀れば大きなる觀有り」(『靈』下22), 「往く道の頭に甚だ峻シキ坂有りき。坂の上に登りて、躊躇ヒテ見れば」(『靈』下23)와 같이 「험준한 언덕」이 등장한다. 이를 산중타계관의 영향으로 추정해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닐 듯싶다. 중국의 태산은 태산의 신이 거기에 있어 死靈을 모이게 한다고 했는데, 死靈이 산으로 모인다는 점은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靈異記』가 성립되기 전인 延曆7년(788), 最澄은 比叡山

7) 『日本書記』卷第十四「雄略天皇二十二年秋七月條」에는「波國の余社郡の管川の人瑞江浦島子、船に乗りて釣す。遂に大龜を得たり。便に女に化爲る。是に、浦島子、感りて婦にす。相遂ひて海に入る。蓬萊山に到りて、仙衆を歷り賭る。語は、別卷に在り」라고 기술되어 있다. 기사의 성립은 持統朝이후로 추정된다(『日本古典文學大系』주참조).

8) 金岡秀友(1988) 「地獄・極樂思想の系譜」 『地獄と極樂』, 集英社. pp.13-16참조

9) 岩本裕(1965) 『極樂と地獄』, 三一書房, p.164참조

에 延曆寺를 창건한다. 比叡山은 그 안에 많은 분묘가 있는 고대의 묘지로, 이곳에 영혼이 모여든다는 他界信仰이 있었다. 最澄이 여기에 절을 세운 것도 이러한 신앙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弘仁7년(816) 空海가 창건한 高野山, 和歌山縣의 熊野妙法山도 영혼이 모이는 곳으로 믿어지고 있었다<sup>10)</sup>.

다음으로 『冥報記』에 보이지 않는 『靈異記』의 「大河」「深き河」에 관한기술인데, 「路の中に大河有り。椅を渡し、金を以て塗り嚴れり」(『靈』上30), 「往く前の道、中斷えて深き河有り」(『靈』下9), 「其の河に椅を渡せり」(『靈』下22) 등의 예가 그것이다. 생전의 죄업의 경중에 따라 건너는 길이 다른 「三途の河」의 원형이라 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三途」와 관련해서 강은 아니지만 「椅の本に三つの衢有り。一つの道は廣く平に、一つの道は草小し生ひ、一つの道は藪を以て塞がる」(『靈』下22), 「三つの大きな道有り。一つの道は平に廣く、一つの道は草生ひ荒れ、一つの道は藪を以て塞がる」(『靈』下23)와 같이 죄의 경중에 따른 3갈래의 길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있어 「三途の河」의 신앙은 平安말기 偽經인 『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에 의해서 일본의 독자적인 고유의 신앙으로 퍼지게 되는 바, 平安말에 걸쳐 3갈래의 길과 강이 혼합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冥報記』에 「川」이 없다고 하여 『靈異記』의 獨自적인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中國에서도 이미 六朝時代の 冥界遊行에 관한 二, 三의 說話에 보여진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入部正純는,

원래, 사자가 강을 건너고 사자의 나라에 다다른다는 신앙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것으로 그 기원은 매우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대륙, 중국에 있어서도 오래된 설화집 혹은 變文등속에 이 명계의 강이나 산을 적은 예나마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앙은 직접 불전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六道輪廻사상에 중국 고래의 민족종교적인 것, 도교적인 신앙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하나의 속신신앙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靈異記』에 그려진 명계의 모습도, 넓은 시야로 보면, 그와 같은 대륙신앙의 흐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靈異記』에 가장 영향을 미친 『冥報記』에 그다지 보이지 않다는 것은 『靈異記』의 독자성, 즉 奈良말의 일본의 사상으로 간주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1)</sup>. 수궁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靈異記』의 기술이 「三途の河」의 원형으로서의 충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冥報記』와 차별된 사상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10) 武見李子(1988) 「地獄・極樂思想の系譜」 『地獄と極樂』, 集英社. pp.145-146참조

11) 入部正純(1988) 「日本靈異記における冥界」, 『日本靈異記の思想』, 法藏館, pp17



### Ⅲ. 冥界의 모습과 역할

명계의 모습이란 官府에 다다라서 대문에 들어간 이후 주인공의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명계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건물이라든가 그곳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囚人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역할이란 명계에서 행해지는 기능으로써 일종의 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먼저 『冥報記』의 관련기술을 보기로 한다.

- ㉔ 遠から不シテ一所ニ至り多く廟獄を見る。火光甚だ盛んなり。神僧を將て一院に入る。遙か一人の人の火中に在るを見る。号呼して言ふこと能は不。形変ジテ復識るべから不して血肉憔悴して人ヲシテ心を傷ましむ。(中1)
- ㉕ 初め收られ官ノ曹に詣。内に忽ちに其の母を見る。中ニ在りテ禁めヲ受く・・・主司寶を引きて官ニ見セシム。・・・官召シテ主吏に問う。(中4)
- ㉖ 「庭の前を見るに池の水有り。清淺ニシテ愛すべし。池ノ西岸の上ニ金の佛像有り。高さ五寸可なり。須臾して漸く大にシテ化して僧と爲る」(中8)
- ㉗ 官府ノ大門に入りヌ。見るニ囚百餘人有り。皆重り行テ北面ニ立り。凡そ六行を爲せり。其の前の行の者の形状肥白にして好キ衣服は貴人の如し。後は漸瘦惡にシテ或いは枷鎖を着け或いは但に巾帶を去りて皆袂を連ねたり。・・・諸の囚は官の前に至りテ次を以て問ひ諄ぶ(中13)
- ㉘ 太山に自りて府君に陳訴すべし(中15)
- ㉙ 冥史の爲に攝せられ南行シテ門に入る。門内ノ南北ニ大なる街アリ。左右を夾みテ往き行くニ官府の門舎有り。行くこと十里許なるべし。東西の街に至る。街の廣さ五十歩許なり。多く史卒有り。男女を駈り逐街ニ滿ちテ以テ東ニ行く。・・・思一直ニ南に大なる街に渡りテ一官曹に至る。官思一に問ふて(中16)
- ㉚ 冥官ニ収録せられ一ノ官曹にいたる。廳事甚だ宏壯ナリ。其の庭亦廣大ナリ。庭内に囚數千有り。或いは枷鎖す。或は杻械す。皆面北セルニ庭中に滿つ。吏山龍を將テ廳事に至る。一の大官ノ高床ノ坐ニ坐するヲ見ル。侍衛さること王者の如し。・・・  
□□此の人を將テ緒獄を歴視セシムベシ□□といふ。吏即ち山龍を將テ行くこと百餘歩なり。一つの鐵の城を見る。甚だ廣大ナリ。上ニ屋ヲ覆ふコト有り。其の上ニ旁く多く小窓有り。・・・此れハ是れ大獄ナリ。・・・□□爲ニ五道等ノ署ヲ取るべし□□といふ。使命を受けて山龍を將て更に兩曹を歷るに各廳事有り)。(中19)
- ㉛ 卽ち穴の中に入る。・・・便ち官門見れヌ。引き入りたる庭ハ見るに武帝一人ト共ニ同座セリ。而るに加敬の客有り。使者儀同ヲシテ王を拜せしむ。・・・庭前を見るニ一つの鐵床並びに獄卒數十人有り。皆牛頭人身ナリ。(下3)
- ㉜ 唯是れ空城ナリ。地皆熱キ灰碎タル火ナリ。(下8)

- ① 人に隨行し一つの大門に入る。見るに廳事有り。甚だ壯くシテ北に向かひて立つ。廳上ノ西の間ニ一の人有りて坐す。形容肥黑ナリ。廳の東の間に一の僧有りて坐す。官と相ひ當たる。皆面を北に向かひタリ。各床几案褥有り。侍僮子二百許りの人あり。皆容兒美シ。階の下に官史の文案あり・・・瓊遙かに北門の外を見るに昏暗にして多く城有り。城皆小さき牆を上ぐ。是れ惡處に似たり・・・吏隳を東南に出だす。行きテ三重の門を度る。門毎に皆臂ノ印ヲ勘視る狀す。後に出づることを聽す。第四の門に至る。門甚だ狀大ナリ。重樓朱粉にして並びに開きタル狀官城の門の如し。守衛甚だ嚴しい。」(下23)
- ② 官府に至りて大門に入る。又巷ノ南を巡りテ行くこと十里許なり。巷の左右皆官曹有れば門閣相對シテ勝げて數ふべから不。法義一曹に至り官人に見ゆ。(下24)

우선 명계의 대략적인 구조에 관해서인데 명계로 끌려간 사람은 官曹, 이를테면 官廳街에 이르는데 대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은 「巷ノ南を巡りテ行くこと十里許なり。巷の左右皆官曹有れば門閣相對シテ勝げて數ふべから不。法義一曹に至り官人に見ゆ」(下24)와 같이 어떤 도시의 거리를 연상시키는 지역을 지나는 경우가 많다. 관청은 「廳事甚だ宏壯ナリ」(中18), 「甚だ壯くシテ」(下23)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관청안에 들어가면 囚인들이 판결을 기다리는 정원이 있고, 재판관인 大官이 「高床ノ坐ニ」에 앉아 있는데 호위를 받는 모습이 마치 「王者」와 같으며(中19), 어떤 때는 의자, 책상, 깔개가 준비된 높은 계단 위에 거하는 경우(下24)도 있다. 이러한 冥界의 모습은 당시의 官廳과 동일한 모습<sup>12)</sup>으로써 현실속의 실재하는 이미지가 투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판관의 외양을 「形容肥黑」(下23)이라고 형용한 구절은 염마왕의 모습을 기술한 유일한 용례로 주목된다.

관청의 역할을 보면, 많은 囚인들이 판관을 배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中12, 中18)에서 알 수 있듯이 혐의가 있는 수인들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곳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옥의 위치에 관해서인데, 中18에는 판관을 배알하고 난 주인공이 「甚だ廣大ナリ。上ニ屋ヲ覆ふコト有り。其の上ニ旁く多く小窓」이 있는 철로 된 「大獄」을 보기도 하고, 下23의 주인공은 「遙かに北門の外」에 있는 「昏暗にして多く城」을 보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靈異記』의 관련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其の京に至る時に、八の官人有りて、兵を佩びて追ひ往く。前に金の宮有り。宮門に入りて見れば王有す。黄金の坐に坐す。・・・若し父を見むと欲はば、南の方に往け」とのたまふ。(『靈』上30)
- ② 七人の非人有りき。牛頭にして人身なり。我が髮に繩を繫け、捉へて衛り往く。見れ

12) □□新古典文學大系 今昔物語集②□□(岩波書店、一九九九年)、247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몇 겹으로 되어있고 빨강과 흰색으로 나뉘어 칠해져있고 여는 모습이 官城의 문과 같다」(下23)에서의 官城은 長安의 王城을 상기시킨다. 또한 下24의 「六曹」는 唐朝의 6部에 대응된다.

ば前の路に樓閣の宮有り。・・・宮の門に入りて、『召しつ』と白す。(『靈』中5)

- ㉔ 時に閻羅王の使二人來りて光師を召す。西に向かひて往く。見れば前路に金の樓閣有り。・・・當に知れ、行基菩薩將に來り生まれたまはむ宮なりとといふ。其の門の左右に、神人二立ち、身に鉀鎧を著、額に緋の蘘を著けたり。・・・即ち北の方を指して・・・更に將て還り來り、金の宮の門に至りて、先の如く白して言はく「將て還り來つ」といふ。宮門に在る二人告げて言はく(『靈』中7)
- ㉕ 其の路の左右に、宝幡を立て列ね、前に金の宮有り。・・・宮門の左右に、額に一つの角生ひたる人有り。大刀を捧げて、吾が頸を殺らむとす。・・・門の左右に蘭しき(食+希)饌を備けて、諸人樂しび食ふ。吾、中に居ること七日、飢ゑ渴きて、口より焰を出す。(『靈』中16)
- ㉖ 是の優婆夷、夜寝ね、病まずして卒爾にして死し、閻羅王の所に到る。時に王、見て起ち、床を立て(『靈』中19)
- ㉗ 前の道の頭に、重れる樓閣有り。炫耀きて晁を放つ。四方にたまのすだれ<sup>13)</sup>を懸け、其の中に人居り。面貌を覲ず。詔を奉りて召し入るれば、簾を聳けて問ひ告りたまはく「・・・我は閻羅王、汝が國に地藏菩薩と稱す、是れなり」とのたまふ。即ち右のみ手を下し、我が項を摩でて告りたまはく、『我、印点するが故に、災に逢はじ。速忽かに還り往け』とのたまふ。彼の手の指の大きさ、抱き十抱余の如し」といふ。(『靈』下9)
- ㉘ 到れば、黄金の宮有りて、其の宮に王有せり。椅の本に三つの衢有り。一つの道は廣く平に、一つの道は草小しく生ひ、一つの道は藪を以て塞がる。蝦夷を其の衢に立てて、一人宮に入りて曰はく『召しつ』といふ。王見て言はく「・・・即ち草小しく生ひたる道を示して言はく『此の道より將來む』とのたまふ。四人副ひて熱き鐵の柱の所に至りて、彼の柱を抱かしむ。鐵を編ミテ熱く焼き、背に著けて押す。(『靈』下22)
- ㉙ 坂の上に登りて、躊躇ヒテ見れば、三つの大きな道有り。一つの道は平に廣く、一つの道は草生ひ荒れ、一つの道は藪を以て塞がる。衢の中に王有す。使白して言はく『召しつ』とまうす。王、平なる道を示して言はく『是の道より將よ』とのたまふ。王の使衛り往く。道の末に大きな釜有り。湯の氣、焰の如し。涌沸くこと波の如し。吼え鳴ること雷の如し。(『靈』下23)
- ㉚ 腰より上の方は、既に牛と成り、額に角を生ふること、長さ四寸許なり。二つの手は牛の足と作り、爪皴ケテ牛の足の甲に似たり。腰より下の方は、人の形を成す。(『靈』下26)
- ㉛ 火君の氏、忽然に死して琰魔の國に至る。時に王扱ふるに、死期に合はぬが故に、更に敢へて返しき。還る時に見れば、大海の中に、釜の如き地獄有りき。其の中に黒き椀の如き物有りて、涌き返り沈み、浮き出づ。(『靈』下35)
- ㉜ 我、法花寺の幢を仆さしめ、後に西大寺の八角の塔を四角に成し、七層を五層に減じき。此の罪に由りて、我を閻羅王の闕に召し、火の柱を抱かしめて、挫釘を我が手の

13) 「たまのすだれ」에 해당하는 한자는 [竹]+[珠]이다.

於に打ち立てて、問ひ打ち拍つ。(『靈』下36)

- ① 閻羅王の關に至る。目に見えずして、聞くに、大地に響かして打たるる人の音有り。  
サケビテ<sup>14</sup>言はく「痛きかな、痛きかな」と、打つ遍毎にいひき。(『靈』下37)

우선 명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신에 의해 명계로 끌려가는 사람은 「西に向かひて往く。見れば前路に金の樓閣有り。」(『靈』中7)와 같이 대부분 金으로 된 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술하 바와 같이 「大河」「深き河」를 건너가게 되거나 「卒シキ坂」를 넘어 입궁하는 경우도 보인다.

일단 궁에 들어가면 「黄金の坐」(『靈』上30)에 앉아있는 閻羅王을 알현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발(簾)뒤에 몸을 숨긴 閻라왕(『靈』下9)의 목소리만을 접하기도 한다. 궁의 내부 구조를 전하는 기술은 거의 없으며, 궁내부의 역할은 『靈異記』中5의 방생의 공덕과 살생의 죄업의 중간에서 죄의 유무의 판정을 받는 부자의 이야기가 단적으로 말해주듯 死者에 대한 심판이 주를 이룬다. 죄인이 명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명계로 가서 명계의 궁에서 선행과 악행이 저울질된다고 하는 것이다. 『靈異記』中5에서 善惡의 판단을 둘러싸고 閻羅王이 「大分の理判は、多數の証に由るが故に、多數に就かむ」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대변해준다. 선과 악이 數量化되어 기계적으로 그 경중이 측정되는 것은 『靈異記』下37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명계의 閻라왕이 거하는 궁 이외에, 죄업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지옥의 위치에 관해서인데 『靈異記』에서는 그 명확한 위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지, 閻라왕을 배알하는 「道の末に大きな釜」지옥(下23)이 있기도 하고, 「還る時に見れば、大海の中に、釜の如き地獄有りき。其の中に黒き桴の如き物有りて、涌き返り沈み、浮き出づ。」(『靈』下35)와 같이 명계로 돌아오는 도정에서 大海의 「釜の如き地獄」을 보게 되기도 하며, 그 이외에는 막연하게 「閻羅王の關」(『靈』下36, 『靈』下37 등)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靈驗記』와 『冥報記』를 조사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주목된다. 즉, 『靈驗記』의 명계의 구조, 冥官의 모습등에 관한 기술은 『冥報記』보다 훨씬 소박하고 간단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冥報記』의 명계의 구조는 관청가를 방불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갑을 채운 수인들, 죄상을 기록하는 관인들, 높은 의자에 앉아 채판을 보는 관관등, 관청내부의 모습등은 『靈驗記』의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표현에 관해서인데, 『靈驗記』에서는 「王」「閻羅王」「地獄」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데에 반해서 『冥報記』의 경우는 「閻羅王」대신 「官」이 주를 이루고, 지옥이라는 표현 대신 「大獄」, 「緒獄」, 「獄門」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다음의 澤田瑞穂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5</sup>).

14) 「サケビテ」に該當する漢字は「口+司」である。

본래의 閻羅王은 이 정도의 높은 地位와 權威를 갖는 王者였지만, 中國에 전해진 후의 閻羅王은 그 王宮도 기껏해야 中都市의 府城나 高官의 邸宅 정도의 것으로 생각되게 되어, 王자신도 法廷에서 직접 亡者를 審判하는 法官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특히 服裝이나 風貌는 전혀 中國風의 官服을 입고 검은 수염을 휘날리며 嚴格無類의 判官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사실이 六朝이후의 說話나 唐末의 地獄圖卷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중략) 罪人을 審判하는 것은 閻羅王인데, 入冥譚의 모든 것에 閻羅王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예는 적을 정도로 대부분은 단지 主者·王者·貴人·陰君·府君·鬼王·判官·官人 등으로 적혀있다. 세상의 일반적인 罪囚를 재판하는 데에 언제나 閻羅王을 등장시키는 것이 뭘했는지, 아니면 仏典에 의해서 전해진 架空의 王이라고 하는 違和感이 있어, 中國의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피한 것일까. 府君으로 한 것은 泰山府君이나 華山府君과의 관계가 있고, 中國의 神으로 하여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현세에 있어서의 太守와 같은 地位가 높은 官人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 府城·屬官·儀仗·服裝도 모두 中國風이며, 查問이나 處置도 역시 中國의 裁判方式을 反映한다. 學者가 唐末의 地獄十王圖에 의하여 오래된 刑罰의 武器나 用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 IV. 墮冥界의 이유와 구제의 이유

본 절에서는 冥界에 가게 된 이유와 다시 현세로 돌아오게 된 이유, 즉 구제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冥報記』의 墮地獄의 이유와 蘇生의 이유에 관해서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타지옥의 이유는 악업과 관련되는 15화의 예에서 살생과 관련되는 예가 8화나 되어 不殺生戒에 대한 『冥報記』의 강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한편, 악업과 관련이 없는 8화의 예중, 명계의 실수에 의한 예가 2화이며 명계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요청을 받는 예가 3화이다. 특히 후자가 명계쪽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 명계의 요청에 의한 佛事와 증언까지 더하면 전체의 반이 넘는 5화가 된다.

다음으로는 소생의 이유에 관해서인데, 공덕을 강조한 것과 여타로 나눌 수 있겠다. 구체적인 공덕의 종류는 각각 법회가 2화, 염불이 1화, 造佛이 3화, 독경이 1화, 추선이 5화, 방생이 1화 등이다. 추선이 두드러지는 항목인데 각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거의 살생한 대상에 대한 추선의 약속으로써, 앞서의 不殺生戒에 대한 이야기와 상응한다. 불교적

15) 澤田瑞穂(1991) 『地獄變』, 平河出版社, p8. pp79-80참조.

16) 자세한 내용은 이시준(2003.8) 『『冥報記』冥界說話의 類型과 모티브』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참조

인 공덕을 강조하는 이외의 것으로는 악업의 혐의가 풀리는 경우, 즉 무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4화의 예가 보인다.

다음으로 『靈異記』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卷/話	人物	墮地獄의 이유	蘇生의 이유	비고
上27	石川の沙彌	사기·횡령·수탈 등		現世의 業火에 燒死
上30	廣國	지옥에 떨어진 자의 요청	무죄임이 밝혀짐	
上30	善臣廣國의 아버지	살생·사기·횡령·수탈 등		아들인 廣國에게 「罪の苦を贖へ」라고 부탁. 소생여부불명
上30	廣國의 처	불명		소생여부불명
中5	撫凹凸村の長者	살생	放生의 공덕	
中7	智光	惡口	뜨거운 철기둥, 동기등을 껴안고 몸이 문드러져 다시 사는 고통과 阿鼻地獄에서 고통을 받고 소생	
中10	젊은이	살생		現世의 業火에 燒死
中16	부자의 하인	慳貧	7일간 굶어 목이 마르고 입에서 불이 나는 고통을 받았으며, 방생의 공덕으로 소생	
中19	利刈の優婆夷	염리왕앞에서의 독송	염리왕앞에서의 독송이 끝나고 소생	
中24	樽磐嶋	불명	지옥의 鬼에게 향응을 베풀어 명계로 끌려가지 않게 됨	
中24	率川神社의 易者	다른 사람 대신		소생여부불명
中25	布敷臣衣女	불명		지옥의 鬼에게 향응을 베풀어 명계로 끌려가지 않게 되나 발각되어 소환됨. 소생여부불명
中25	?垂郡の女	다른 사람 대신	대신 명계에 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下9	藤原廣足	지옥에 떨어진 자의 요청	처의 남은 3년의 고통을 받는 대신 범화경공양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소생	

下9	藤原廣足の 처	죽음		소생여부불명.
下22	他田舍人蝦夷	사기· 횡령· 수탈 등	사기에 대한 죄값을 뜨거운 철기둥, 동기등을 부여안는 고통으로 치루고, 법화경서사의 공덕에 의하여 소생	
下23	大伴連忍勝	사기· 횡령· 수탈	절의 물건을 사용한 죄값을 뜨거운 가마솥에 넣는 고통을 당하나 대반야경서사의 원한 공덕에 의하여 소생	
下35	火君の氏	불명	죽는 시기가 아님이 밝혀져서 소생	
下35	物部古丸	사기· 횡령· 수탈		소생여부불명. 추선에 의한 脫苦
下36	藤原永手	절의 물건을 파손	스님의 사신공양에 의해 지옥에서 풀려났으나 시신이 이미 없어진 탓으로 완전한 소생은 하지 못함	
下37	佐伯宿禰伊太知	인과의 법을 모름, 악행		소생여부불명. 추선에 의한 脫苦
下37	京中の人	불명	불명	

명계와 연관되게 되는 이유를 악업(혹은 그 혐의)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는 사기· 횡령· 수탈(上27, 下22, 下23, 下35), 살생등(上30, 中5, 中10), 惡口(中7), 慳貧(中16), 절의 물건파손(下36), 인과의 법을 모름· 악행(下37), 죽음(下9), 지옥에 떨어진 자의 요청(上30, 下9) 등이며 악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다른 사람대신(中24, 中25), 염라왕 앞에서의 독송(中19), 불명(中24, 中25, 下35, 下37) 등이다.

다음으로 명계로부터 소생할 수 있게 된 이유에 관해서인데, 불교의 공덕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放生(中5, 中16), 법화경(下9, 下22), 대반야경(下23), 스님의 捨身공양(下36) 등이다. 단, 中16은 방생뿐만이 아니라 7일간 굶는 고통을 받았고, 下22는 법화경의 공덕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철기둥· 동기등을 안는 고통을, 下23은 대반야경의 공덕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가마솥에 들어가는 고통을 각각 받고 소생하고 있다.

한편, 불교의 공덕과 관련 없는 후자는 무죄임이 밝혀짐(上30), 阿鼻地獄에서의 고통을 겪음(中7), 염라왕 앞에서의 독송이 끝남(中19), 지옥의 鬼에게 향응을 베풀(中24, 中25), 죽는 시기가 아님을 앎(下35) 등이다.

『靈異記』와 『冥報記』를 비교해 보면, 명계설화는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합리적인 경우일지라도 주인공은 다시 현세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또한 명계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든가 명계의 실수에 의한 경우, 그리고 불명확한 경우등 양쪽 모두에서 철저하게 현세와 명계의 경계선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와 영혼관, 즉 육체를 떠난 魂이 다시 육체로 되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시체가 소각된다거나 상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세부적으로는 『冥報記』가 不殺生戒에 대한 교훈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靈異記』는 사기·횡령·수탈등 보다 사회적, 경제적인 교훈이 비교적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冥報記』에는 없고 『靈異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불교의 공덕이외에 악업의 대가로 고통을 받고 소생하는 경우가 『靈異記』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中7, 中16, 下22, 下23의 경우인데, 가령 中7의 智光은 惡口の 죄업으로 인해 뜨거운 철기둥, 동기둥을 껴안고 몸이 문드러져 다시 사는 고통과 阿鼻地獄에서 고통을 받고 소생하고 있으며, 판자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하고 있다.

師を召す因縁は、葦原の國に有りて行基菩薩を誹謗る。其の罪を滅さむが爲の故に請け召すらくのみ。……口業の罪に由りて、閻羅王、我を召して鐵銅の柱を抱かしむ。経ること九日にして誹謗の罪を償ふ。

하선의 두 곳의 표현에 주목하면 현세의 악업을 지옥의 고통을 통하여 속죄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中16의 「汝飢えたる翁媪に施さずして、厭ひし罪の報いなり」、下22의 「大乘を寫したりと雖も、重き罪を作れり。所以は何にとならば、汝斤二つを用ゐて、出擧する時は、輕き斤を用ゐ、債ヲ徴る日は、重き斤を用ゐるが故に、汝を召しつるのみ」下23의 「是の善有りと雖も、多に住める堂の物を用ゐしが故に、汝の身を摧く」 등의 기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소생담은 이미 田崎篤朗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전통적인 죄의 관념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sup>17)</sup>. 즉 하라이(祓い)의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죄는 이 세상에서 속죄되어 제거된다는 관념이다. 하라이(祓い)와 지옥의 고통은 비록 다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에 의하여 淨罪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 것이다.

전통적인 죄의 관념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藤原廣足の 처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斯の女の受く可き苦、六年の中、三年を受け、未だ受けざるは三年なり。今愁へて白さく、汝が兒を孕みて、之れに嬰りて死ぬが故に、今殘れる苦を、汝と俱に受けむとまをすとのたまふ」에 주목하면, 아무래도 죽음과 관련되는 듯하다. 藤原

17) 田崎篤朗(1994.10) 「古代にみられる中國文化への憧憬と自土意識--『日本靈異記』における地獄觀の成立をめぐって--」, 『季刊日本思想史』, ベリかん社, pp.17-18참조



廣足の 자식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반(3년)을 藤原廣足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惡事로 기피해야하는 대상이라는 점은 『延喜式』(卷3, 臨時祭)의 「凡そ觸穢惡事、応に忌むべくんば、人死三十日に限り、産七日」등의 기술로 잘 알 수 있는 바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및 인식의 반영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冥報記』의 裁判은 그 취조하는 모습이 엄하고 문서에 의한 절차가 철저한 반면, 『靈異記』쪽은 간단하고 애매한 판정을 받아 용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靈異記』에 있어서의 지옥의 판정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고대 일본인의 죄의식이 게가레(穢れ)라고 하는 것에 입각하고 있고, 당시는 아직 재판제도 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와 깊이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V. 결론

본고의 목적은 『冥報記』의 명계담과 『靈異記』의 명계담을 비교하여 『靈異記』에 있어서의 『冥報記』의 영향과 『靈異記』의 독자성을 살피는 데에 있다. 고찰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세와 명계의 위치관계를 비교해보면 넓은 시야에서 보면 현세와 명계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수평타계관이라는 점에 있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 話型과 내용상에서 『冥報記』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여 곧바로 수평타계관을 『靈異記』의 답습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靈異記』쪽에서 보면 수평타계관적인 고대의 일본의 타계관과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冥報記』의 내용을 그만큼 쉽게 수용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冥報記』에 보이지 않는 『靈異記』의 「大河」、「深き河」에 관한 기술이 주목되는데, 위의 표현이 「三途の河」의 원형으로서의 충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冥報記』와 차별된 사상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두 번째, 명계의 모습과 역할에 관해서인데, 『靈驗記』의 명계의 구조, 冥官의 모습 등에 관한 기술은 『冥報記』보다 훨씬 소박하고 간단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冥報記』의 명계의 구조는 관청가를 방불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갑을 채운 수인들, 죄상을 기록하는 관인들, 높은 의자에 앉아 채판을 보는 판관등, 관청내부의 모습 등은 『靈驗記』의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靈驗記』에서는 「王」、「閻羅王」、「地獄」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데에 반해서 『冥報記』의 경우는 「閻羅王」대신 「官」이 주를 이루고 지옥이라는 표현 대신 「大獄」、「緒獄」、「獄門」 등이 사용되고 있다. 『冥報記』의 설화를 보면 그 府城·屬官·儀仗·服裝도 모두 中國風이며, 査問이나 處置도 역시 中國의 裁判方式을 反映하고 있다. 설화는 각각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靈驗記』가 『冥報記』의 내용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지라도 정치, 사회적 여건이 미성숙한 당시의 고대일본적인 상황이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을 드러나

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墮地獄의 이유와 蘇生의 이유에 관해서인데, 양쪽의 명계설화는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일지라도 주인공은 다시 현세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또한 명계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든가 명계의 실수에 의한 경우, 그리고 불명확한 경우등 양쪽 모두에서 철저하게 현세와 명계의 경계선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와 영혼관, 즉 육체를 떠난 魂이 다시 육체로 되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시체가 소각된다거나 상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단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冥報記』에는 없고 『靈異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악업의 대가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소생하는 경우가 『靈異記』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하라이(祓い)의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죄는 이 세상에서 속죄되어 제거된다는 일본의 전통적인 죄의 관념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 【參考文獻】

- 李市竣(2002.2) 「『今昔物語集』における『冥報記』の受容の方法～編者の構想と出典との齟齬を中心にして～」, 日本文化學報第12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219-237
- \_\_\_\_\_(2003.11) 「『日本靈異記』の冥界觀」, 『日語日文學研究』, 한국일어일문학회, pp43-63
- \_\_\_\_\_(2003.8) 「『冥報記』冥界說話의 類型과 모티브」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 石田瑞麿(1998) 『日本人と地獄』, 春秋社, pp83-pp88
- 岩本裕(1965) 『地獄と極樂』, 三一書房, pp.162
- 金岡秀友(1988) 「地獄・極樂思想の系譜」 『地獄と極樂』, 集英社. pp.13-16
- 川村邦光(2000) 『地獄めぐり』, 筑摩新書, pp33
- 國東文麿(1984) 『今昔物語集 (八)』, 講談社學術文庫, pp327
- 小峯和明(1988) 「地獄・冥途」(『今昔物語集宇治拾遺物語必携』, 學燈社, 1988), pp.100
- 西郷信綱(1976) 「古代日本の冥界」 『地獄と人間』, 朝日新聞社, pp8
- 澤田瑞穂(1991) 『修訂地獄變一中國の冥界說』, 平河出版者, pp.79-80
- 說話研究會編(1999) 『冥報記の研究』, 勉誠出版
- 武見李子(1988) 「地獄・極樂思想の系譜」 『地獄と極樂』, 集英社.pp.145-146
- 田崎篤朗(1994.10) 「古代にみられる中國文化への憧憬と自意識-- 『日本靈異記』における地獄觀の成立をめぐって--」, 『季刊日本思想史』, ぺりかん社, pp.17-18
- 入部正純(1988) 「日本靈異記における冥界」, 『日本靈異記の思想』法藏館, pp7-54
- 藤原拓人(1989) 「『日本靈異記』に見る冥界觀」 『東洋大學大學院紀要第26集』
- 宮田尙(1992) 「冥報記の受容と変容」 『今昔物語集震旦部考』, 勉誠社, pp161-196
- 八木毅(1967) 「日本靈異記と冥報記」 『日本靈異記の研究』, 風間書房, pp49-84

## 要 旨

本稿の目的は『冥報記』の冥界說話と『靈異記』の冥界說話を比較して、『靈異記』における『冥報記』の影響と『靈異記』の獨自性を明らかにする点にある。考察の結果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

第一に、現世と冥界の位置關係であるが、廣い觀點からみると、現世と冥界が同一の表面上にあるという水平他界觀である点において共通である。ただし、話型と内容の上で『冥報記』の影響が大きいとはいえ、直ちにこれを『靈異記』の踏襲であると斷言するのは妥當ではない。『靈異記』の方からみると、水平他界觀的な古代の日本の他界觀が大差のない『冥報記』の内容を違和感なく受容でき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細かい所では、『冥報記』にはなく『靈異記』にだけ存在する「大河」「深き河」の語が注目される。これらが後の「三途の河」の原型たりうる充分な意味を表している点では『冥報記』と區別できる日本獨自の思想として見なし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第二に、冥界の姿と役割に關してであるが、『靈驗記』の冥界の構造、冥官の姿に關する記述は『冥報記』よりもっと素朴で簡単な内容となっている。また『靈驗記』では「王」「閻羅王」「地獄」などの表現がよく登場しているが、『冥報記』の場合は「閻羅王」の代りに「官」という表現が登場し、「地獄」という表現の代りに「大獄」、「緒獄」、「獄門」などが使われている。各々の説話は當時の社會像をそのまま反映しており、社會的な條件が未成熟だった當時の古代日本の狀況が上記のような違いを齎したと判斷される。

最後に墮地獄の理由と蘇生の理由に關してであるが、兩方の冥界說話はどんな理由であれ、主人公はほとんど現世への蘇生をはたしている点で共通している。さらに冥界の要請によること、冥界の間違ひによること、理由が不明確であることなども共通である。他にも身体と靈魂の關係、すなわち、肉体を離れた靈魂は蘇生するためには、その肉体が焼かれたり、障害を受けたり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点もおなじである。ただし、局部的には『冥報記』にはなく『靈異記』にだけ見いだされる地獄での責め苦のモチーフには注意されたい。このような内容は祓いを通じて淨罪できるという日本の伝統的な罪の意識の反映であると判斷される。

キーワード: 지옥, 명계, 명보기, 일본영이기, 소생, 구제, 설화, 비교설화

투 고 : 2005. 2. 28

1차 심사 : 2005. 3. 12

2차 심사 : 2005. 4. 2

住 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30번지 현대2차아파트 101동 1604호

電 話 : 011-9733-9933

e-mail : sjlee@ssu.ac.kr